

## ■ 2025년도 지역 예술도약 지원(공연예술) 음악 분야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5년도 지역 예술도약 지원(공연예술) 음악 분야
- 회의일시 : 2025년 5월 15일(목) 10:00~17:00
- 회의 장소 : 예술가의 집 2층 영상 회의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박남연, 양진모, 이민정, 이승묵, 홍현주

2025년 지역 예술도약 지원사업은 지역 공연예술 단체의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예술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된 중장기 전략 사업입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2024년도 공연예술 특화사업을 통해 초연된 작품을 대상으로, 2차 제작 및 재공연을 지원함으로써 단체의 예술적 성장을 도모하고, 작품의 레퍼토리를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심의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14개 광역문화재단에서 추진한 공연예술 특화(집중지원) 사업의 선정 이력이 있는 단체를 추천 받아 음악 및 오페라 분야의 민간 공연 예술단체의 14개 작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음악 분야 4개 단체, 오페라 분야 3개 단체를 선정하였으며, 선정 과정에서는 예술성, 기획의 타당성, 예산의 적절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준 높은 기획과 지역색이 돋보이는 작품들이 다수 접수되었으나, 일부 작품은 콘텐츠의 예술적 정체성과 방향성, 그리고 2차 제작으로서의 구체적인 발전 전략이 다소 부족한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작품성과 별개로 마케팅 전략이나 홍보 계획의 미흡함 역시 여러 단체에서 공통으로 드러난 과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의 심의 기준은 총 100점 만점 기준으로 다음의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각 항목은 공연예술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와 실현 가능성, 그리고 지역적 파급력과 기획의 타당성을 균형 있게 평가하기 위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체의 기획서 및 인터뷰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① **추천 작품의 작품성 (30점)** –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 창의성, 사회적 메시지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초연 당시의 공연 성과나 자문단과 관객 비평 반응을 함께 고려하여, 작품이 지닌 내적 완성도와 예술적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였습니다.

② **사업계획의 타당성 (40점)** – 2차 제작의 필요성과 방향성, 제작 과정의 구체성, 일정의 현실성, 실행 주체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특히 '사업계획의 타당성' 항목의 배점이 가장 높은 이유는, 본 사업이 2차 제작이라는 실질적 제작 기반을 요구하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술성과 함께 실현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중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③ **예산편성의 타당성 (20점)** - 자부담금, 인건비, 제작비, 홍보비 등 항목별 산정의 적절성, 예산 운용 계획의 신뢰도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였습니다.

④ **추천 작품의 기대효과 (10점)** - 재공연 이후의 관객 확대, 지역 사회 파급 효과, 장기적인 콘텐츠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번 심의 전반에서 가장 크게 느낀 바는, 공연 콘텐츠의 **정체성과 예술적 철학**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에 도달했다는 점입니다. 지역 예술단체의 공연이 단순히 일회성 창작에서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브랜드와 레퍼토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작품의 예술적 방향성과 주제 의식이 명확해야 합니다.** 특히 현대 공연예술은 기획의 독창성과 사회적 파급력을 중시하며, 단체 고유의 해석 관점 없이 단순히 잘 만들어진 공연은 더 이상 경쟁력이 없습니다. '이 단체는 왜 이 이야기를, 이 형식으로 공연하는가?'에 대한 해답이 작품 안에 내재 되어야 합니다.

둘째, **단체의 창작 철학과 운영 방식이 일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콘텐츠의 정체성은 단순히 하나의 공연을 넘어서 단체 전체의 예술적 정체성과 연결되어야 하며, 공연 기획부터 운영, 관객 개발 전략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철학이 필요합니다.

셋째, **지역성과 보편성을 함께 담아낼 수 있는 콘텐츠 기획 전략이 중요합니다.** 지역예술도약지원사업이 궁극적으로 지역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지역공동체와의 유의미한 연계성과 함께, 전국 단위로 유통 가능한 보편적 매력을 함께 지니는 기획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콘텐츠는 지역에서 시작되지만, 전국을 향해 확장 되어 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이번 사업은 각 지역문화재단의 추천을 통해 신청 자격을 얻는 방식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접수된 작품들은 대부분 해당 지역의 문화, 역사, 인물, 전통예술 등을 소재로 하여 지역적 특색을 살리고자 하는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일부 단체는 지역민속 설화를 현대적으로 각색하거나, 전통 음악과 현대 음악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예술 형식을 시도하였고, 지역 공연장 및 교육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사회와의 접점을 확대하고자 하는 기획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성의 반영이 콘텐츠의 예술적 정체성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많은 단체들이 지역적 요소를 전면에 내세웠으나, 왜 이 소재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떤 철학적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였으며, 공연 형식과 주제 간의 유기적 연결도 미흡한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지역성을 반영한 공연일수록 단순한 소재 나열을 넘어, 예술적 해석과 연출 전략을 통해 고유한 색채를 구축해야 합니다. 콘텐츠의 정체성이란 단지 지역 이야기를 다룬다는 차원을 넘어서, 그 지역 이야기를 '왜 지금 공연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예술적 응답을 담아야 한다는 점에서, 향후 사업 참여 단체들이 반드시 보완해야 할 핵심 과제로 지적됩니다.

### 1. 음악 분야 심의 총평

음악 분야는 클래식, 전통, 현대 음악을 포함하여 다양한 장르와 형식의 공연이 제안되었으며, 2차 제작 및 재공연이라는 공모 취지를 충실히 반영한 단체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선정된 네 개 단체는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강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첫째, **예술적 완성도와 작품성이 높은 단체**였습니다. 이들 단체는 초연 당시 관객 반응이나 평가에서 우수한 반응을 얻었고, 해당 공연의 예술적 기획 방향과 철학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기존의 음악 공연 형식에 새로운 시도를 가미한 기획, 예컨대 다원 예술과의 협업, 특정 주제에 대한 음악적 해석 등을 통해 작품의 독창성이 확보되었고, 이는 단순한 재공연을 넘어 창작적 진화를 위한 '2차 제작'이라는 개념에 부합했습니다.

둘째, **2차 제작의 방향성이 명확하고 타당성이 높았습니다**. 재공연의 필요성과 명분이 뚜렷했으며, 단순한 반복 공연이 아니라 공연 구조를 재조정하거나, 연주자 편성 및 연출을 보강하는 계획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공연예술에서 '레퍼토리화'를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전략이며, 본 사업의 본질에 충실한 접근이었습니다.

셋째, **지역 확산성과 관객 개발 전략이 구체적**이었습니다. 선정된 음악 단체들은 해당 지역의 음악 인프라와 협력체계를 적극 활용하며, 지역 학교·복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관객층 확대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부 단체는 예술 교육적 효과를 동반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함으로써 공연의 파급 효과를 지역 전반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전략을 보여 주었습니다.

다만, 음악 분야에서도 일부 단체는 '공연의 정체성'이 흐릿하거나, 향후 유통 구조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은 평가에 영향을 미쳤으며, 단체들이 다음 단계에서 공연 정체성과 예술적 기획의 일관성을 보다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2. 오페라 분야 심의 총평

오페라 분야는 총 3개 단체가 선정되었으며, 이들은 장르의 복합성과 높은 제작 난이도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예술적 성과와 실현 가능한 운영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오페라 분야 심의의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2차 제작을 통해 무엇을 새롭게 확장할 수 있는가?'였으며, 선정된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오페라 콘텐츠의 명확한 방향성과 기획 의도**가 돋보였습니다. 단순히 원작을 무대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작품을 현대적 맥락에서 재해석하거나, 관객 친화적

인 구성으로 각색하는 기획이 우수하게 평가되었습니다. 일부 단체는 원작의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지역 정체성이나 사회적 메시지를 반영함으로써 공연의 시대적 의미를 확장하려는 노력을 보여 주었습니다.

둘째, **재공연의 목적이 매우 실용적이며, 실행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기존 공연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재편성된 제작 계획은 실제 무대에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였습니다. 음악, 무대미술, 연출, 번역, 번안 등 다양한 요소에서 개선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셋째, **관객 개발 및 지역 사회와의 연계 전략이 탁월했습니다.** 오페라는 대중 친화적인 장르로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선정 단체들은 관객과의 소통을 위한 번안 작업, 관객 친화적인 소재나 원작과 같은 교육적 요소를 결합한 프로그램을 구성함으로써 접근 장벽을 낮추는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그러나 오페라 분야에서 공통으로 아쉬웠던 점은, 일부 작품의 **장르에 대한 정체성과 2차 제작의 차별성이 불분명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동일한 작품을 재공연하면서 단순히 출연진이나 무대 장치만을 바꾸는 방식은 콘텐츠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오페라는 종합예술이자 고비용 구조를 가지는 장르인 만큼, 단순 재연의 차원을 넘는 '왜 지금 이 작품을 이 방식으로 다시 공연해야 하는가?'에 대한 철학적 질문이 더욱 명확히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단체마다 고유한 미학, 해석 관점, 연출 언어 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레퍼토리의 진정한 의미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 지역 예술도약 지원사업은 지역 공연예술의 장기적 발전 가능성을 실험하고, 창작 기반을 다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선정된 단체들은 각자의 콘텐츠를 통해 지역성과 예술성을 조화시키고, 나아가 단체의 고유한 브랜드 공연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번 심의를 통해 확인된 과제 역시 분명합니다. 콘텐츠의 예술적 정체성 확립, 2차 제작으로서의 구체적인 발전 전략, 실효성 있는 홍보 마케팅 계획 수립은 모든 단체가 더욱 정밀하게 준비해야 할 과제입니다.

앞으로 지역 예술도약 지원사업이 더욱 체계적인 기획과 실행을 통해 지역 예술 현장의 생태계를 뿌리내리게 하고, 공연예술이 지역 사회의 자긍심과 문화적 자산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실질적 이바지하기를 기대합니다.

심의위원 일동